

家政科 教育의 發展의 探索

尹 仁 卿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I. 서 언

어느 국가이건 그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여성상이 있다. 가정과 교육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바느질, 음식 만들기와 같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다가 교육의 보편화와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습득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가정은 수학, 과학, 외국어 등과 함께 세계 여러나라에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의 하나로서 교양 교육과 직업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정규학교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로서 그 역사가 길다. 현행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민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 가정과 가사 과목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여러 과목에서 가정과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은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국어·영어·수학처럼 독립 교과로서의 위치를 가지지 못하고 실과와 실업·가정 교과목의 일부분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에게만 가르치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일시위주의 교육, 실현·실습 시설의 미비, 교수·학습 방법의 획일성 등과 같은 요인으로 교사·학생·학부모들에게 낙후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 과정 개발, 교사 양성 제도의 결핍, 실습 설비 기준 제정 등과 같은 가정과와 관련된 정책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리하여 최근 가정과 교육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학자들이나 교육 실무자들 사이에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수반된 국가, 사회적 인 여러 요인들의 변화는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의 학술 대회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가정과 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은 가정과 교육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 먼저 가정과 교육의 성격을 생각해 보고 가정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그에 터하여 가정과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자 한다.

II. 가정과 교육의 성격

학교 교육에서의 교과는 모두 모체가 되는 학문이 있으며 그 학문을 근거로 교과가 발전하게 되는데, 가정과 교육은 가정학을 학문의 근거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학은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이 가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남성이 직업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여성은 재봉과 조리 등 가사를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가정과 교육이 여성을 대상으로 가사, 재봉, 조리 등을 가르친 것을 시작으로 한 점과 통한다.

그러나 가정학은 제 4차 Lake placid Conference (1902)와 미국 가정학회 Home Economics New Direction II(197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의 본질,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가정생활이 보다 좋은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그러므로 가정학에서는 인간과 환경과 관련되는 여러 이론은 물론 이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학교 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 교육(보통교육)과 직업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여 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직업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 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의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적 측면은 전인 교육, 기초 교육, 생활 교육 등과 관련을 가지는 보통 교육이다. 교육법에 나타난 자주적·창조적·도덕적 및 건강한 인간상 등은 모두 민주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보다 성숙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가정과 교육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과학이나 수학과, 사회과, 예능과 등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은 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실제의 생활에 적용되어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 결정 능력 등을 신장시켜 줌으로써, 생활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즉,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지식과 기능이 가정과 교육에 통합되어 우리의 생활을 변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며, 여기에 기초교육, 생활 교육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의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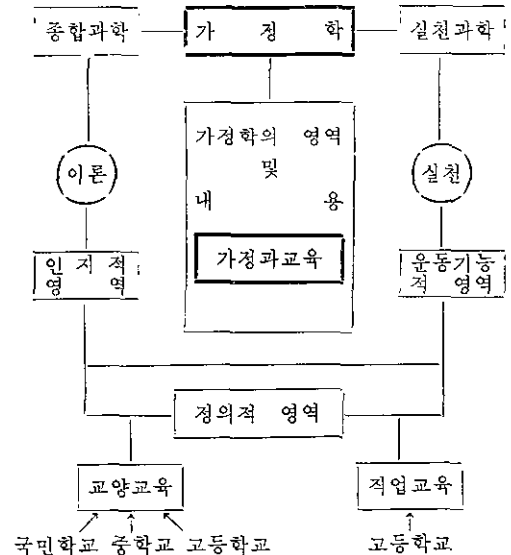
그밖에도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만든 세계(man made world)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최소한의 소양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생활인에게 필요한 교양이다. 가정과 교육은 이러한 기본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도 영향을 주며 이는 국민의 기초과학과 기술에 대한 소양과도 관련을 가진다.

직업 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개인이 대학 졸업 이하의 자격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그 일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이해, 판단력 등을 개발하거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개선·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일의 현장에서 능력을 개발하는 전체 교육의 일부이다.²⁾ 즉 직업 교육은 개인이 어떤 직업이나 직업군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를 도와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서 가정과는 실험·실습을 강조하고 타교과에 비하여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의 특성은 미국, 일본, 자유중국 등의 국가에서 직업 교육의 분류에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등과 함께 가정계를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여³⁾ 직업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가정과 교육은 직업 교육으로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사 실업계 고등학교나 미국 오하이오주의 HERO(Home Economics Related Occupations) 프로그램, 피츠버그 지역의 OVT(Occupational,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프로그램, 일본의 직업계열 교육 과정 중 가정계열 프로그램, 자유중국의 가사 직업 교육 등은 모두 그 보기이며,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고등학교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가정과 교육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dual-role) 도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Ⅲ. 가정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은 국민학교에서는 실과, 중·고등학교에서는 가정과 가사 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학교 실과는 주당 2시간씩 이수시

1) 장명옥, 가정학원론, 서울: 교문사, pp. 25~29.

2) 이부근(1984), 실업-기술 교육론, 서울: 배영사, p. 13.

3) 윤복자 외(1987), 가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 교육 개발원, pp. 3~4.

키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의 50% 정도가 가정과와 관련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은 가정교과, 남학생은 기술을 1,2학년에서 필수로 이수하고, 3학년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산업 기술과 가정 중에서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농업·공업·상업·수산업·가사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등의 계열이 있는데 이중 가사·실업계 고등학교는 전국에 1개교도 없다. 다만 실업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등에서 부분적으로 가사·실업 계열 교육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과 교육은 교양 교육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타계열에 비하여 위축되어 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과밀 학급, 교수·학습 방법의 획일성과 자료의 미비, 교사의 직무 과중 등과 같이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가지는 동시에 실험·실습을 위한 실습 비용 등의 부족, 교사양성 체제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를 크게 교육 과정 편제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상의 문제, 교수·학습 방법, 실험·실습 시설 등과 관련되는 운영상의 문제, 교사, 교과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양성과 관련된 문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문제

교육 과정은 학습자에게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학교에서 유효할 수 있도록 지식, 사고의 양식, 경험 등 문화 내용을 재구성한 모든 수준의 계획⁴⁾으로서 학생, 교사와 함께 학교 교육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도 학교급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과 시간 배당, 과목의 목표, 내용, 유의점 등을 문교부 고시로 공포, 제시하고 있는데 가정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1) 가정은 여학생만을 위한 과목으로 존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사, 재봉, 수예 등의 가정과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이며, 그후

수차례에 걸쳐 교육 과정이 개정되어 왔으나, 아직도 가정은 여학생만을 위한 과목으로 존속되고 있다. 더우기 1969년의 교육 과정 개정을 계기로 기술 과목이 신설되면서부터는 여학생에게 기술의 내용을 이수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였으나, 남학생에게는 아무런 변화없이 오직 기술만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남녀 학생이 농업·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중심의 선택 과목 운영은 가사를 여학생을 위한 과목으로만 존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남녀 모든 학생을 위한 가정과 교육이 1900년초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날 많은 수의 남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교육을 받고 있다. 즉, 국가의 산업화와 교육의 보편화 등은 많은 여성을 노동 시장으로 진출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은 성에 관계 없이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상의 또는 교육 현장에서의 성에 대한 경직된 편견은 변화하는 국가 사회의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교양 교육으로서의 가정교과가 실업·가정교과에 속한 과목으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가정과 교육은 제 2차 교육 과정에서 잠시 실업·가정 교과에서 벗어나 독립교과로 존재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실업·가정 교과에 포함되는 과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가정과 교육이 집 안의 일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농업, 공업, 수산업 등 남성적인 과목에 대응하여 여성에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학의 성격과 국가·사회적 요인들의 변화 등으로 가정과가 실업·가정 교과의 일부로서 존재해야 하는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3) 가정과에 배당된 시간은 타교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과를 지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중학교에서의 가정은 1학년은 주당 3시간, 2학년은 4~6시간, 3학년은 5~7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정과 가사를 각각 8~10단위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과의 시간 배당 비율은 중학교에서는 전체 과목의 7.3~8.8%로 14개 과

4) 박병선(1988), 교육과정, 배영사, p.131.

목 중 6위에, 고등학교에서는 4.5~4.9%로 17개 과목 중 10위에 속해 있어,⁵⁾ 시간(단위)배당율의 순위로 볼 때 전체 교과목의 중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배당을 타교과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정과는 실험·실습을 병행하는 교과이므로 학생들의 실습장 이동, 실습 재료의 준비, 안전에 관한 지도, 실습 후의 평가 및 뒷정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최저 시간만을 배당하고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2학년과 3학년에서 최저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학교 수는 전체 학교 중 각각 58.3%, 45%인 반면, 최대 시간을 배당한 학교는 각각 4.5%와 5.6%⁶⁾ 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가정과 가사 모두 최저 단위인 8단위만을 배당하여 운영함으로써 전체 교사의 61.1%가 절대적 시간 수의 부족을 운영상의 애로점으로 지적⁷⁾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목에는 최대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 가정과의 내용이 학교급별, 학년별 연계가 부족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학생의 이해도, 흥미도, 활용도 등이 낮은 부분이 있다.

가정과와 관련있는 내용은 국민학교 실과와 중등학교의 가정·가사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들간에는 반드시 같은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등 가정과의 각 영역을 다루되, 학생의 발달수준과 기능의 복잡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의 청소년의 특성, 식생활과 건강은 수준이 높게, 가정 자원은 흥미도, 활용도가 낮은 단원으로, 고등학교의 영양, 의복, 재료 등은 수준이 높게, 식생활 자원, 주택 설계 등은 활용도가 낮은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내용 선정과 실습 제재의 선택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교육 과정과 교과서 개발상의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교육 과정은 6~10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국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개정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과서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 내에 제한된 예산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 현장 실험, 삽화나 사진 제작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2. 가정과 교육의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

수업은 교과목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의 개발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과 교육 현장에는 이를 저해하는 많은 요인이 있다. 여기서는 그 중 몇 가지만을 들어보고자 한다.

1) 교수·학습 방법이 강의 위주로 획일적이다.

교수·학습 방법은 과목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의 동기유발, 흥미나 적성의 개발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주로 강의식으로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1학기 1회의 조리실습(89.4%), 2회의 재봉실습(31.6%),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관찰 수업(8.4%)⁹⁾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교육에서는 지식 이해, 실습, 현장 견학, 조사, 관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판단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이론 중심의 평가가 대부분이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적·태도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 시내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학기당 실기 평가 1회, 지필검사 2회로 평가하는 경우가 전체의 48.0%로 가장 높으며, 지필 검사만으로 평가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러한 평가 방법은 가정과 교사 자신들도 개선

5) 윤인경 외(1988), 고도 산업사회에 대비한 실업·가정 교과목의 내용 체계 및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162.

6) 윤인경 외(1986), 가정과 교육 과정 운영실태조사 결과

7) 윤인경 외(1987), 제5차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 과정 시안 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107.

8) 조영희 외(1986), 제5차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별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65~66.

9) 주경숙 외(1982),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그 효율화 방안, 공주사대논집 20, p.164.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¹⁰⁾

3) 실험·실습을 위한 실습장, 실습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정과는 국어·영어·수학과는 달리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은 가정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실이나 시설, 용구나 공구 등이 매우 빈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1985년의 조사에 의하면 조리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으나, 재봉실, 수예·편물실, 세탁·염색실은 보유율이 각각 49.4%, 2.6% 0.0%¹¹⁾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습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실습 시설은 문교부령에 학교 교구 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인 경우에도 50% 이하만이 교구설비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며¹²⁾ 그나마 확보된 시설들도 그 질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들면, 전라북도의 경우, 재봉에 필요한 기본 용구인 극자, 대자, 실과 바늘, 재봉틀, 다리미 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은 학교가 각각 33%, 42.7%, 82.5%, 44.7%, 31%로 나타났다.¹³⁾ 이러한 우리의 실정은 15~16명의 학생이 각자의 재봉틀 앞에서 배당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수업 분위기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습 시설이나 기구의 부족이 가정과 교육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큰 지장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교수·학습 자료가 빈약하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일 교과서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전국의 모든 수업 현장에서 절대적인 학습 자료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다양한 교육의 조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수업이나 교과서 중심의 지식암기 교육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수·학습 자료 활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한학기 동안 슬라이드, 영사기, 투시판 등기를 3회 이하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녹음기는 36시간마다 1회, 패도는 20시간마다 한 번 사용하고 있다.¹⁴⁾

그리고 그나마 갖추어진 것들도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거나, 낡아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신상욱¹⁵⁾의 조사에 의하면 영사 자료나 비디오, 카세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조사대상의 6.5%, 2.6%, 10.5%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5) 직업 교육으로서의 역할이 전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3월 고등학교를 3년제로 하면서 인문계 및 실업계 교육이 분리, 실시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생을 사회에 배출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1958년 교육 과정에서는 가정계 고등학교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는 다시 가사 실업계 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 실업계 고등학교는 현존하는 것이 없으며 정규 학교로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정과가 1학급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타계열의 경우에는, 농업계 62개교, 공업계 102개교 상업계 205개교, 수산계 9개교이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농업계 14개 과정, 공업계 59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학교의 시설도 농업계와 공업계는 특성화 농고와 공고, 지방 농고와 공고 등의 정책을 통하여 집중 투자된 반면 가사 실업계는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가정과와 관련되는 산업과 직업 세계는 대단히 넓기 때문에 가정과와 관련되는 직업을 개발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성에 관계없이 이 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수차례에 걸친 직업교육 진흥 정책과 그때마다 가정과를 포함시켜 오늘날 대중화된 가정과 교육이 실시되게 한 점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6)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문교부나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이, 학교의 교장이나 그밖의 타교과 교사들, 학부모나 학생의 가정과에 대한 인식 부족도 가정과 교육 과정이나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가정과 교사의 38.8%가 학교장이나 행정당국

10) 최승자(1985), 가정과 학습 평가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4~86.

11) 신상욱(1985), 일선 교사를 통하여 본 가정과 교육, 중앙대학교 사대학보, p. 35.

12) 한국교육개발원(1989), 학교 교구 설비에 관한 조사(보고서 작성중)

13) 김보연(1985), 전라북도내 중·고등학교의 가정과 의생활 실습 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p. 17.

14) 김영철 외(1987), 학교 시설의 현대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 63.

15) 신상욱(1985), 전계서, p. 35.

의 편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⁶⁾ 그 밖에도 교육정책이나 교육 과정 결정 과정에서 가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의 부족, 문교부나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가정 담당 연구사, 장학사의 수가 타교과에 비해 적은 점, 가정과에 배당되는 실험·실습비는 과학과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점, 학부모의 반대로 집에서 가정 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그 보기가 될 수 있다.

7)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다.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1986년 현재 중학교 59.7명, 고등학교 56.3명으로 1975년에 비하여 중학교 4.8명, 고등학교 2.3명이 각각 줄어 들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과밀 학급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내외이나 실습을 할 경우에는 분반을 하여 15명 미만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은 21.6명, 자유중국은 46.5명, 그리고 일본은 37.5명¹⁷⁾으로서 여전히 우리 나라보다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편이다.

가정과 교육은 타교과에 비하여 실험·실습이 중시되는 교과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 교사가 60여명의 학생들을 실습장 한 곳에 모아 놓고 실습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실습보조교사나 실습시 분반 제도를 시행할 업무조차 낼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될 수 없으며, 안전 사고의 위험 뿐만 아니라 교사의 실습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8) 교사의 타업무가 과중하다.

교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분야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교사의 50%¹⁸⁾ 이상이 업무 과다로 근무하는데 부담이 따른다고 반응하고 있어 교육 외적인 잡무의 근절을 원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교사는 실험·실습에 따른 자료의 준비, 재료의 구입, 실습 후 뒷정리, 표본의 준비 등 타교과의 교사들 보다 교과의 수업에 필요로 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으므로 잡무의 부담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게 할 수 밖에 없다.

3. 가정과 교육의 인적 자원과 관련되는 문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업인데

이 수업은 교사에 의해 운영되고, 교사는 전문 교육을 마친 후 일정한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계속해서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1) 교사 양성 체계가 미흡하다.

우리 나라의 가정과 교사 양성 체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가정과의 교육 과정 중에서 가정관리 영역은 전체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밖의 영역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사범 대학의 경우에도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1 학기의 각과 지도법 뿐이며 이나마도 가정과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과는 유리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자격 제도,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교사 임용 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는 과목이 세분화·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적절한 교사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은 사회과나 과학과의 경우 대학 수준에서부터 학과가 세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전문화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 교과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교과 교육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과정이 바로 교과 교육 활동이며, 이는 교육학의 일반적인 이론과 교과의 학문적 성격이 서로 잘 조화되어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교과에서는 교과 교육을 전공하는 전문인력의 배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전국의 가정대학에 설치된 124개 학과 중 가정교육 학과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석사나 박사과정도 가정 교육학과로 설치된 곳은 없다.¹⁹⁾ 다만 가정학

16) 신상욱(1985), 전계서.

17) 김영철 외(1987), 미래 산업 사회를 지향한 교육 발전 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 103.

18) 신상욱(1985), 전계서

19) 문교부(1988), 문교통계연감

과내에 가정 교육 전공이 극소수 있을 뿐이다. 또한 교육 대학원의 경우에도 가정과 교육과 관련되는 과목으로 가정과 교육론, 가정과 교육 방법, 가정과 교육 과정 등이 개설되고 있으나, 이 중 1 과목만을 2~3 학점의 범위내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을 비롯한 9개²⁰⁾ 대학의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그 중 6개 가정대학에서 가정교육학과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교과교육 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가정과 교육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가정과 교육과 관련되는 연구는 학회 활동과 연구물의 양이나 질적 평가에서 파악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교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1948년 국어 교육 연구회가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1962년 한국 사회과 교육 연구회와 한국 수학 교육학회, 1965년 자연과학연구회²¹⁾ 등 1960년대에 들어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과의 경우에는 1947년 대한가정학회가 창립되어 초기에는 교과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학문적 연구에 기울었으며, 교과교육연구회는 1984년 서울 중등가정학회의 창설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89년에야 전국 규모의 가정교육 학회가 발기되었다.

따라서 가정교육 관련 연구 활동도 그만큼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1947년에서 1979년까지 대한가정학회에 발표된 논문 300편 중 가정교육관련 부문은 불과 12편²²⁾이며 그나마도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자 대학의 석사, 박사 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의 학위 논문도 가정과 교육보다는 식품, 영양, 의복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며, 가정과 교육 관련 논문은 문헌이나 실태 조사를 통한 연구물 정도에 그치고 있다.

IV. 가정과 교육의 발전 방향

가정과 교육은 그 성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 교육과 직업교육의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교육 현실은 이수대상을 여학생에게만 국한시키는 등 교육 과정 편제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실험·실습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습실, 실습승구의 빈약 등 교육현

장의 여건은 매우 부실하다. 한편 직업·교육적 측면에서도 교육 과정은 있지만 학교와 교사가 없는 즉, 전혀 무시된 상태인데 이는 정책적 수준에서의 배려가 부족한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의 교육 현실이 임시 위주, 다인수 학급, 교원의 사기저하, 교육 투자의 미흡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데서 오는 어려움은 가정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은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과밀 학급, 교사의 업무과중, 교수·학습 방법이나 자료의 개발 등과 같은 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정과의 실험·실습과 관련되는 현장의 문제, 교사양성체제와 현장과의 괴리문제, 가정과 교육 전문가의 양성체제 문제 등은 단기 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연구와 투자를 통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더욱 더 나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에서의 정착을 배제시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남학생도 가정을 배울 수 있게 하므로써 가정과 교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2) 가정과 교육을 국민학교에서부터 연계시키되, 특히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가정을 실업·가정 교과에서 분리시켜 독립된 교과로 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의욕을 고취시킨다.

3)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교육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이는 가정과 교육이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종래의 편협한 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는 교양 교육 또는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경제 사회적 필요성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4) 교원양성제도와 교사의 현직교육 및 연수제도를 검토·개선하여 현장의 요구에 맞는 가정과 교사를 양성하므로써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5) 직업교육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므로써 개인과 산업

20) University Bulletin Minnesota, Louisiana, Iowa, Texas, Florida, Sqracuse 등

21) 홍용선(1988),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과교육학의 정립, 한국교원대학교 교교 3주년 기념 심포지움

22) 홍용선(1988), 전게서

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교과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의 제도에서도 교육과정의 개정, 가정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통하여 가정과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7)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의 개발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평가되어 그 결과가 차기 연구·개발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8) 가정과 교육에 대한 가정학자, 교과전문가, 교육행정가,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곽병선(1988), 교육과정, 배영사.
- 김보연(1985), 전라북도내 중·고등학교의 가정과 의 생활 실습 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주(1986), 국민학교 실과 교육과정 개정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외(1987), 미래 산업사회를 지향한 교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외(1987), 학교시설의 현대화, 한국교육개발원.
- 신상욱(1985), 일선교사를 통하여 본 가정과 교육,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사대 학보 제21호.
- 윤인경 외(1986), 제 5차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시안 연구·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윤인경(1987), 중학교 남녀 학생을 위한 가정과 교육, 대한가정학회지.
- 윤인경 외(1987), 제 5차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시안 연구·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윤인경 외(1988), 고도산업 사회에 대비한 실업·가정교과의 내용체계 및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이무근(1984), 실업-기술 교육론, 배영사.
- 이정근 외(1980),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과학·기술계 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옥, 가정학원론, 교문사.
- 조영희 외(1986), 제 5차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시안 연구·개발(별책), 한국교육개발원.
- 주정숙 외(1982),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그 효율화 방안, 공주사대논문집 20.
- 최승자(1985), 가정과 학습평가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 운(1986), 일선교사를 통하여 본 가정과 교육의 현황 및 그 문제점 조사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용선(1988),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과교육학회 정립, 한국교육대학교 개교 3주년 기념 심포지움.
- Hughes, Ruch Pierce (1982), 25 Years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a Look Ahead. Illinois Teacher, 25(4).
- Pittsburgh School Board (1983), Occupational Vocational and Technical Courses. Pittsburgh, PA, U.S.A.
- Roy, W. Roberts (1957), Vocational and Practical Arts Education-History Development and Principles-Haper & Brothers, New York, U.S.A